

2015년 1월 후원금 사용 보고서

1. 2015년 1월 후원금 개요

2015년 1월 후원금은 총 3,880,000원으로 후원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10개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.

구분	단체명	1월 총 후원금
아동	상록보육원	925,000원
환경	푸른아시아	790,000원
질병	한국소아암재단	500,000원
노인	행복창조	465,000원
저소득지역	꿈이있는푸른학교	200,000원
	흑석지역아동센터	200,000원
교육	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	200,000원
	아름다운학교	200,000원
여성	낙태반대연합(Pro-Life)	200,000원
장애	안산평화의집	200,000원

2. 신규후원기관 “안산평화의집”

사회에서 소외 받는 정신지체 장애인 관련 시설 “안산평화의집”이 새로운 협약 시설로 클로버가든에서 모임을 시작 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.

3. 안산평화의집 사랑의 쌀 전달 행사(2월 13일)

2015년 설을 맞이하여 안산평화의집에 사랑의 쌀 100kg가 전달되었습니다. 행사에는 서용상 차장님 외 3분이 직접 기관에 방문하셔서, 쌀 전달식 뿐만 아니라 오전 동안 생활관 전체 청소를 해주셨습니다. 기부해 주신 소중한 쌀은 안산평화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50명의 중식 지원에 쓰여질 예정입니다.



안산평화의집은 1983년 설립되어 소외 당하고 본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(주거공간, 재활치료)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안정된 정서와 건강한 몸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,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계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시설 내 만연니 은숙씨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로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숙씨는 평생을 누워지내고 있습니다. 안산평화의집은 이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지체장애인들이 함께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는 곳입니다.

안산평화의집에서 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,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



안산평화의집에 입소하는 장애인들은 모두 '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'로 가족과 사회에 버림받아 오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. 일반인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,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버거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환영해주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안산평화의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안산평화의집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장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.

후원자 명단

릭실코리아 (이성철)



2015년 2월 25~27(2박3일)에 걸쳐 몽골사막화 피해지역 주민 및 주민지도자 교육이 있었습니다. 교육에서는 주민의 협동조합 및 농업 전문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개발하고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며, 주민들의 역할 및 비전 인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- 교육 피드백

“협동조합의 설립 취지가 바로 설 수 있었다. 1조림지를 변화시키고, 2조림지에 유실수를 심을 것이다. 강의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.” (BY 다와체링 팀장)

“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다. 이번에 2조림지에서 차차르칸 122kg을 혼자 수확했다,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어 함께하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다. 감사하다.” (BY 보이나 팀장)

전기이월금

195,590 원

1월 총 후원금

790,000 원

후원금 모집활동비*

52,690 원

당월 사용금액

몽골사막화 피해지역 주민교육
(총액 2,450,000원 중 38% 총당)

932,900 원

차기이월금

0 원

* 카탈로그 제작/인쇄 및 홈페이지 구축 비용 등

후원자 명단

릭실코리아 (이초롱 김준석) 대일산업(주) (박민하 박민아 박보희 박사민 서명석 박태근 박희승)

